

화개정원 57일 만에 관광객 10만명 돌파!



화개산 전망대



화개정원



화개정원



화개정원

강화군 화개정원이 지난 5월 13일 정식 개원한 이후 57일 만에 입장객 10만 명을 돌파하며 대한민국 서북단의 새로운 대표 관광명소로 우뚝 섰다.

정식 개원한 이후 교동도 지역이 활기를 띠고 있으며, 다녀간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요즘 꼭 가봐야 할 ‘핫 플레이스’로 알려지며 방문객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7월 8일까지 화개정원의 입장객은 100,869명으로, 일평균 입장객이 1,770명이며, 가장 입장객이 많을 때는 5천명을 넘기도 했다. 현재 주차장은 대형버스 15면을 포함하여 519면이 구성되어 있으나, 주말 등 휴일에는 주차장이 부족해 진입도로까지 주차하는 모습을 보이곤 한다.

군에서는 5월과 6월에 근로자의 날을 비롯해 어린이 날, 부처님 오신 날 등 연휴가 많고, 나들이철인 것을 감안해 관광객을 산출해도 연간 약 54만명이 화개정원을 방문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화개정원에서는 강화군 특산품인 쌀(500g)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스탬프 프로그램, 제기차기·웃놀이·굴렁쇠 등 전통민속놀이,

문화관광해설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며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화개산 관광자원화 사업은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강화군의 관광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 추진한 유천호 군수의 최대 역점사업으로 2022년부터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았다.

2022년 5월 가장 먼저 화개산 모노레일(민간)이 운영을 시작으로, 11월 화개정원 시범운영을 시작하였다. 2023년 1월에는 화개산 전망대를 개방하여 화개정원 전체가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군은 시범 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해 2023년 5월 정식 개원했다.

교동도는 대룡시장과 난정저수지의 해바라기 밭, 망향대, 고구저수지, 교동제비집, 화개사 등 다양한 관광지를 품고 있어 화개정원과 함께 향수를 자극하는 전국적인 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천호 군수는 “앞으로 더욱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어 전국 최고의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정원문화의 확산과 강화만의 특색 있는 정원으로 가꾸어서 2,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

- 최벽하 기자

민선 8기 1주년,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낳은 커다란 성과

유천호 강화군수 “앞으로 3년, 강화의 미래가 달려”



유천호 군수님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10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민선8기 1주년을 맞아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부군수, 국·과장, 읍·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천호 군수는 회의에 앞서 “민선8기 1년은 ▲군민우선 공감행정 ▲풍요로운 주민복지 ▲생동하는 지역경제를 모토로 쉼 없이 달려왔다. 직원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으며 늘 감사하다”고 소회를 전했다.

민선8기 공약이행률이 2023년 3월 기준 49.9% 달성, 114개 공약 사항 중 31건을 이미 완료됐고 유천호 군수를 중심의 적극행정으로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 최우수상’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다수의 상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으며, 2035년까지 인구 10만, GRDP 2배, 관광객 2배 달성을 위한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여진다. 민선 8기 1년의 몇가지 주요사업을 살펴보자.

■ 강화군 최대 랜드마크 ‘화개정원’ 개원

교통 화개정원은 인천시 최초의 지방정원으로 총사업비 433억원 11ha규모로 ▲5색 테마정원 ▲스카이워크형 전망대, ▲화개산 모노레일 (민간) 등이 조성됐다. 개원 57일 만에 10만명의 입장객이 화개정원을 다녀갔으며, 일평균 1,770명으로 꾸준히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 초대형 여가·문화활동 명소「강화군 행복센터」

‘강화군행복센터’는 총사업비 206억원을 투입해 2,400평, 지상 6층의 군 최대 규모의 시설이다. ▲농산물판매장, 마을식당, 카페 ▲수도권 최고의 어린이 실내놀이시설(키즈카페) ▲노인여가시설, 도시재생센터 및 마을관리협동조합 사무실 ▲재봉실, 제과제빵실, 조리실, 요가·미술·서예 등 문화프로그램실 등 생활 밀착형 문화공간으로 강화군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 군민 힐링공간, 강화에도 도시공원 탄생

총 6만3천평 규모에 569억원을 투입해 도시공원 4개소를 조성했고, 군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힐링공간이 대거 탄생했다.

■ 서도연도교 사업 본격 착수

총사업비 740억원(주문연도교 300억원, 불음연도교 440억원), 주문도·아차도·불음도 등 3개 섬을 연결하는 총연장 1.6km규모의 해상 교량 2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낙후된 서도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이었으나, 경제성 문제로 중앙부처로부터 사업이 반려되는 등 난항을 겪어왔지만, 행정적 문제를 해소하고, 내년에 1단계 사업인 주문연도교를 착공할 예정이다.

올해 특수상황지역 국비예산 169억원 중 37억원이 ‘서도면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투입한다.

■ 군민생활을 더 편리하게! 주차장 조성!

강화 전지역 주차난을 획기적으로 해소해 가고 있다. 총사업비 963억원을 투입해 전체 45개소/4,704면을 확보했다. 향후 화개정원 제2주차장 등 7개소가 더 조성될 예정이다.


■ ‘외포리 종합개발 프로젝트’ 대형군함 마산함 성공적 거처

퇴역함정 ‘마산함(1,960톤급)’을 외포항에 성공적으로 거처하면서 함상공원 조성을 끝마치고, 올 하반기 시범운영을 기다리고 있다. 관람객 안전관리와 안전시설을 대폭 강화한 개선공사가 한창 추진중이다.

■ 15년만의 민통선 조정, 검문소 2개소 폐지

접경지역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검문소를 통폐합 이전했다. ▲하점면 신봉리 검문소를 폐지하고 현재 교동대교 검문소로 통합 이전했으며, ▲송해면 당산리 검문소와 양사면 철산리 검문소는 폐지 후 평화전망대 입구 검문소를 신설해 민통선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했다.

이밖에도 군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KBS 열린음악회, 강화10월애 콘서트, 화개정원 축제, 뮤지컬 갈라쇼), 의료복지 개선을 위한 감염병 대응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개소, 교통망 확충,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등의 성과를 이뤘다.

유천호 군수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 1년간 군민이 행복한 강화의 기반을 굳건히 다져왔으며, 군민 소통과 화합으로 모든 군민이 공감하는 민선 8기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라며, “그 어느 때보다 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는 현재 적극적이고 과감한 행정으로 남은 임기도 강화의 미래 성장기반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강화군행복센터



남산공원 분수소



마산함 거처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로 신뢰받는 행정 '2023년 상반기 강화군 공직자 청렴교육' 실시



상반기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6월 30일 군청 진달래홀에서 직원 26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강화군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위법사항과 처벌규정의 예시를 들어 안내했으며, 공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 근절' 등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조직 내 인식 전환을 강조했다.

이태산 강화군 부군수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공직사회도 발맞춰 간부와 직원 간, 그리고 동료 간에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직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라고, 오늘 교육이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드는 데 초석이 되어야 한다. 청렴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와 관심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강화군 실현으로 이어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

강화군, 상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마무리

적정한 지원 및 부정 수급 방지 대비 / 224가구 296명 급여지원 중단, 1,39가구 1,700명 급여 변동



강화군청 전경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사회보장급여 복지대상자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2023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확인조사'를 완료했다.

조사대상은 1,363가구 1,996명이다. 지난해 상반기 171가구 274명 조사에 비해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조사 결과 224가구 296명의 급여지원을 중지했으며, 1,139가구 1,700명의 급여 변동이 있었다. 복지대상자에서 중지되는 가구에 대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상정, 각종 특례를 적용하거나 타 보장과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제를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 등 근로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아 과(오) 지급된 16가구에 대해서는 약 1,680만 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를 통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등 복지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이다"라며, "복지 급여를 받지 말아야 할 대상자는 보장 제외·중지하고 꼭 지원받아야 할 대상자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 - 최백하기자

강화군, 재난예방 현장 점검 및 장마철 풍수해 대비 총력



옹벽 점검(그랑드빌아파트)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우기대비 안전관리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 12일 급경사지 7개소에 대해 약화된 지반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경사면 유실·붕괴 등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통제 및 현장 안전 관리로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힘을 쏟고 있다.

이어 13일에는 강화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집중호우 대비 재난예방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유천호 군수 주재로 각 국장 및 부서장, 직속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각 읍·면장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는 침수 위험지역 주민들의 즉시 대피 조치를 위한 사전 준비 및 하천변 산책길, 농로 등 위험지역 주민 출입통제, 안내 방송 실시 등 각 부서 및 읍·면에서 주민 안전에 대한 사전예찰 강화 등을 강조했다.

또한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 및 선제적인 안전조치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다.

유천호 군수는 "최근 전국적으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추세로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순찰과 안전조치 철저는 물론 침수 위험지역 주민들이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각 부서와 읍·면에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고, "특히, 재난은 군민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과잉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장마철 선행 강우로 지반이 약해짐에 따라 호우 예보 시 옹벽, 축대, 급경사지 그리고 하천변 산책로 등 위험지역에는 절대 접근하지 말 것"과, "특히,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외출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난 3일 도로 빗물받이 정비 및 배수상태, 급경사지 점검과 예찰활동 및 비상근무 체계유지 등을 강조한바 있다. [1] - 최백하기자



경사지 점검

지역 여건을 반영한 4개 신규사업 요청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마련을 위한 공청회 열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공청회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5일 용진군청 효심관에서 '강화군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관련하여 인천시에서는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신규 사업 추가 등이 반영된 '강화군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인천시에 제출했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은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에 따라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주민 복지 향상 및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강화군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지난 2011년 최초 계획수립 이후 2019년에 1차례 변경을 거쳤고, 이번 2차 변경을 추진한다. 4개 신규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총 14개 사업으로 조정해 반영했다.

이번에 새롭게 발굴한 신규 사업은 ▲외포리 종합 어시장 조성(총사업비 250억 원) ▲양도~내가 동서평화도로 구축(총사업비 540억 원) ▲외포 권역 핵심 관광명소 육성(총사업비 400억 원) ▲선원 동서평화도로 구축(총사업비 616억 원) 등 총 4개 사업이다.

강화군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은 당초 15개 사업 중 3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5개 사업은 대규모 민자사업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아 제외하였고, 7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시와 강화군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검토 보완하여, 최종 발전종합계획변경(안)을 7월중에 행정안전부에 승인 요청할 계획이다.

인천시에서는 강화군과 용진군이 계획수립 대상 지역으로 계획에 최종 반영된 사업의 경우 국비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이번 공청회를 거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변경을 통해 강화군 대규모 공공사업의 차질 없는 준비와 신속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우리 동네 착한 영화관

<강화작은영화관>의 유쾌한 변신

내부 리모델링 및 최신장비 교체 등 여름맞이 새 단장



강화작은영화관 리모델링



강화작은영화관 리모델링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강화작은영화관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을 마쳤다고 밝혔다. 2015년 개관해 군민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지역 내 유일한 영화관인 강화작은영화관이 내부 리모델링을 마치고 노후 장비를 최신 제품으로 교체하는 등 대도시의 멀티플렉스 영화관과 견주어도 손색없는 시설로 업그레이드되었다는 평이다.

주요 사항으로 ▲영화관 로비를 한층 젊은 감성으로 꾸몄고 ▲좌석 87석을 인조가죽으로 교체 ▲영사기 교체로 더욱 선명한 화질을 제공 ▲팝콘 제조기를 신형으로 교체해 다양한 메뉴를 제공한다.

군은 계속된 영화 관람료 인상 압박에도 동결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최신 영화의 안정적인 배급을 위해 7월 26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기존 6천 원에서 7천 원으로 소폭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주요 영화 배급사 측에서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전국의 작은 영화관에 일제히 관람료 인상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미 관람료 인상을 완료한 상태다. 하지만 강화작은영화관은 관람료 1만 6천 원인 시중 영화관의 절반 수준을 유지한다.

일반 영화는 7천 원, 3D영화는 8천 원에 관람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1천 원씩 할인된다.

유천호 군수는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가 보편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최신영화는 영화관에서만 관람할 수 있기 때문에 강화작은영화관은 군민들에게 지역격차를 느끼지 않게 하는 중요한 문화시설"이라며, "관람료가 1천 원 인상되기는 했지만 그만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 최백하 기자

강화군·인천시 동구 경로당 ‘강화섬쌀 공급’ 업무협약 체결

인천 동구 경로당 39개소, 4.6톤 공급



강화군-동구-농협RPC 업무협약

강화군(군수 유천호)과 인천 동구는 7일 ‘동구 경로당 강화섬쌀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업무협약식에는 유천호 강화군수, 김찬진 동구청장, 김영운 강화군 농협쌀공동사업법인 대표가 참석했으며, 이달부터 동구 경로당 39개소에 강화섬쌀 4.6톤이 공급된다.

이번 협약으로 고품질의 강화섬쌀을 경로당에 공급해 어르신들의 밥맛과 건강을 챙길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안정적인 쌀 판로 확보로 쌀 소비 급감에 따른 농가의 시름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작년부터 쌀 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통망 확대에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작년 10월 강화섬쌀 캐나다 수출에 이어 연수구 경로당과 남동 경로당에 각각 업무협약 체결 후 강화섬쌀을 공급중이다.

유천호 군수는 “동구 경로당에 최고 품질의 강화섬쌀을 공급하여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쌀팔아주기에 동참해 주신 김찬진 구청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1**

강화군 행복센터

셰프와 떠나는 이태리요리 여행 성료

강화군행복센터(센터장 강종욱)는 ‘전문 셰프와 함께 떠나는 이태리요리 여행’이 주민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3주간의 여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한 이태리요리 특강 지난해부터 지역 내 조리 전문 특성화 학교인 한국글로벌셰프고등학교와 협력해 진행이다.

총 3회로 구성된 이번 특강은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메뉴인 ‘버섯 아란치니’, ‘브루케스타’, ‘펜토라 파스타’, ‘관자구이와 오리엔탈 드레싱 샐러드’, ‘봉골레 파스타’ 등으로 평소 쉽게 배울 수 없었던 요리를 강좌로 접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참가자들은 “어렵게만 느껴졌던 이태리요리를 가정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쉽게 배울 수 있어 좋았다”, “첫 수업에서 배운 요리를 아이들에게 해 주었는데 요리사가 한 것보다 더 맛있다고 해서 너무 뿌듯했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강종욱 센터장은 “요리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높은 만큼

앞으로도 한국글로벌셰프고등학교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일식, 중식 등 다양한 요리 특강을 진행할 계획이다”라며, “요리 특강 외에도 강화의 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특강이나 계절 맞이 특강 등 다채로운 강좌를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화군행복센터는 하반기에도 어린이 여름방학 특강, 강화 전통 문화 체험 특강 등을 준비하고 있다 **1**



이태리요리 특강-수강생 작품



이태리요리 특강-수강생 실습

강화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최대 100만원 지원



강화군청 전경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역 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지원을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저출산과 물가 상승

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 정책이다.

지원 기준은 ▲부부 모두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 ▲혼인신고일 5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 신고예정인 부부 ▲강화군 소재 전용면적 84㎡(34평) 이하의 주택에 전세자금 대출 2억 원 이하여야 한다.

군은 납부한 대출이자를 확인 후 연간 최대 100만 원, 19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지원한도를 1인당 10만 원 가산해 지원한다. 상·하반기에 지급하며, 이번 신청 시 12월에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출산 가정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유천호 군수는 "지난해 첫 시행 후 현재까지 23세대에 지원을 했으며, 올해도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면서,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해 행복한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화군, 구제역 항체 검사 실시 백신 접종 미흡 농가 최대 1천만원 과태료



소 구제역 백신 접종 사진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구제역 예방을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 6주간 2023년 상반기 일제접종을 추진해 소 532농가 21,634두, 염소 73농가 1,660두를 접종했다.

이번에 실시하는 '구제역 항체 양성률 확인 검사'는 지난 5월 충북지역 구제역 발생에 따라 긴급 백신 예방접종 완료 후 항체가 제대로 형성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한다.

검사는 농가당 시료채취 기준 두수(16두, 기준이하 사육시 전두수)에 대해 실시하며, 관내 소 사육농가 중 전업규모(50두 이상) 46농가와 자가접종 영세규모 농가가 대상이다.

7월 말부터 시작되는 '구제역 항체 양성률 확인 검사'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재검사 없이 행정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백신 항체 양성률(소 80%, 염소 60%)을 기준으로 하며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에 따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 예방접종은 완료하였으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각 농가에서는 자체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며, 구제역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준수해 항체 양성률 미달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화군, 2023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재산세 45,450건, 약 52억 원 부과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45,450건에 대해 5,215백만 원을 부과 고지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 선박이 대상이다.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공정시장가액 반영비율을 45%에서 43%~45%로 인하하고, 특례세율(0.05% 세율 인하)을 적용해 재산세 부담이 감소했다.

또한, 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제도가 신설됐다. 과세기준일 현재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 5년 이상 보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의 소유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 기간은 7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수 있다.

- 최벽하 기자

7월은 1기분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기간 : 2023년 7월 16일 - 7월 31일

납부대상	6월 1일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항공기, 선박)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
납부방법	- 직접 납부 : 모든 관공기관 - 인터넷 납부 - 인본시간대납부 (tax.jincheon.go.kr) - 위택스 (www.wetax.go.kr) - 인터넷지급 (www.giro.or.kr) - 신용카드 납부 - 금융기관 CD/ATM기 납부 - 인본시간대납부 (tax.jincheon.go.kr) - 채무과 정문 납부 : 신용카드 납부가능 - 지영납부 : 위택스 온라인 신청, 채무과 정문 -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인쇄된 가상계좌번호 입력 - A/S 납부 : 1599-7300, 1561-7200

? 재산세, 과세(대응)에 관한 궁금증 99%를 나누어 드립니다.

- 7월 : 주택재산세 1,020건, 건물재산세 납부
- 9월 : 주택재산세 1,020건, 자기재산세 납부

재산세 포스터

강화교육지원청, '강화역사사진 전시회와 함께하는 (읽·견·쓰)' 운영



강화역사사진 전시회(사진제공 강화교육지원청)



강화역사사진 전시회(사진제공 강화교육지원청)


인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환)은 지난 7월 12일 강화교육지원청 2층 마니산홀에서 '2023년 강화역사사진 전시회와 함께하는 읽·견·쓰'를 실시하였다.

이번 전시회는 강화교육지원청과 인천문화재단 산하 인천문화유산센터 공동 주최, 강화역사문화연구소 후원으로 준비되었으며, 8월 11일까지 1개월간 진행된다.

'강화역사사진 전시회와 함께하는 읽·견·쓰'는 100년 전 강화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며, 강화의 옛 모습을 통해 현재의 강화에 대한 이해

의 폭을 넓히고, 서로 이야기 나누며, 짧은 소감을 남기는 것으로, <읽고, 견고, 쓰고>를 일상화한 것이다.

전시회 사진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사진 중 옛 모습이 담긴 23점을 인화한 사진으로 19C 말 ~ 20C 초, 강화의 여러 유적과 유물 및 역사의 현장을 촬영한 것이다.

강화교육지원청은 "강화지역에 거주하는 누구나, 강화의 과거 모습을 보고, 현재의 모습과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강화의 역사적 장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길 바란다"고 하였다. 

강화역사박물관, 여름방학 맞이 '아름다운 고려청자' 진행



아름다운 고려청자 교육



아름다운 고려청자 교육

강화역사박물관은 내달 8월 12일까지 강화역사박물관에서 여름방학 맞이 '아름다운 고려청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아름다운 고려청자' 강화역사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려시대 청자에 대한 제작 기법(음각, 양각, 상감)을 통해 고려시대의 역사 및 문화를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또한 강화 출토 청자에서 볼 수 있는 운학문, 당초문 등의 문양을 소개하며 이를 핸드폰 그림톡으로 만들어 보는 체험활동을 진행한다.

내달까지 총 5차례의 교육을 진행하며, 지난 8일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한 초·중학생 등 40명이 참여해 첫 수업을 시작했다.

교육신청은 강화역사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인원은 회당 40명으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역사박물관(☎ 032-934-8196)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교육 참여자들이 고려시대 뛰어난 청자문화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일상에서 고려시대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강화군, 민선8기 공약관련 여론조사 결과 “강화~계양 고속도로 강화 기점부 우선 연결”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역 언론사인 바른언론과 함께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강화군의 정책 공약사업 중요도 주민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1차, 2차에 걸쳐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 군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약사업은 '강화~계양 고속도로 강화 기점부 우선 연결'인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여론조사는 지난달 16부터 18일까지 만 18세 이상 군민 813명을 대상으로 ▲기반 시설 확대 ▲문화·복지시설 확충 ▲맞춤형 복지 지원 ▲어르신 복지 ▲농수축산업 관련 5개 공약분야에 대해 실시했다.

기반 시설 확대 부분에서 군민 45.8%는 '강화~계양 고속도로 강화 기점부 우선 연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는 1·2차 여론조사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로 모든 연령과 성별, 지역별로도 '강화~계양 고속도로 강화 기점부 우선 연결' 사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화·복지시설 확충 공약 부분은 '근린 생활공원 확충 및 이용 활성화'가 33.3%로 가장 높았고, 맞춤형 복지 지원 공약은 '출산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사업이 38.3%로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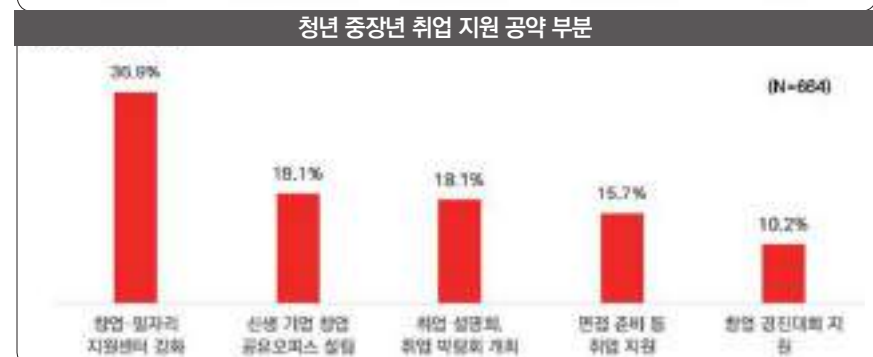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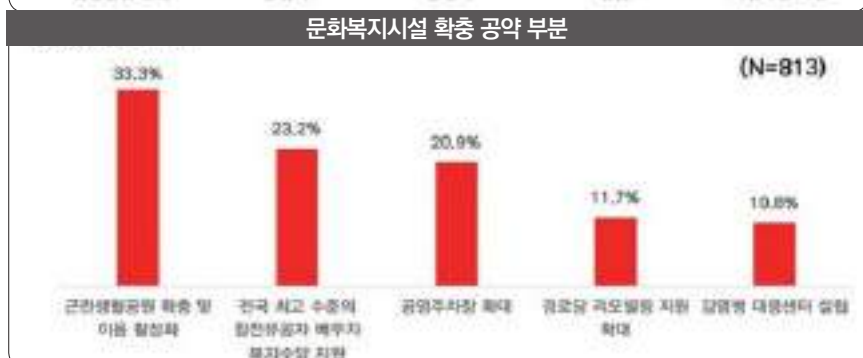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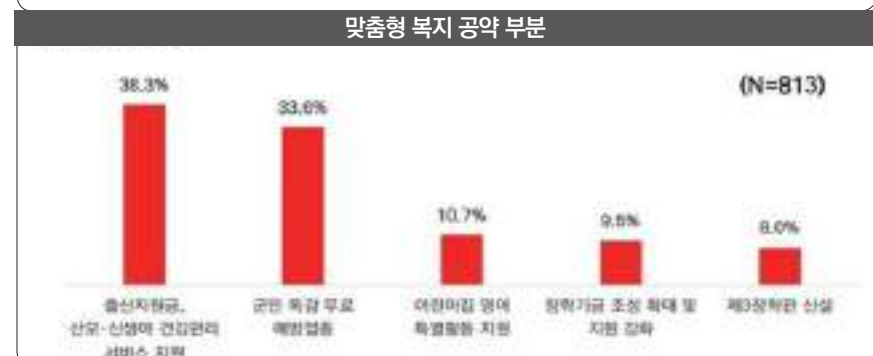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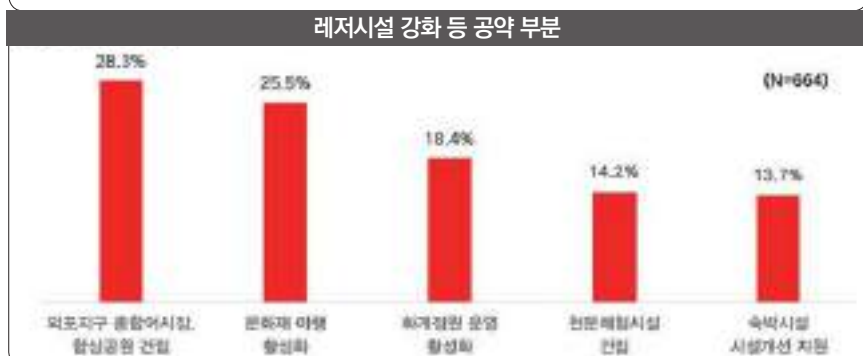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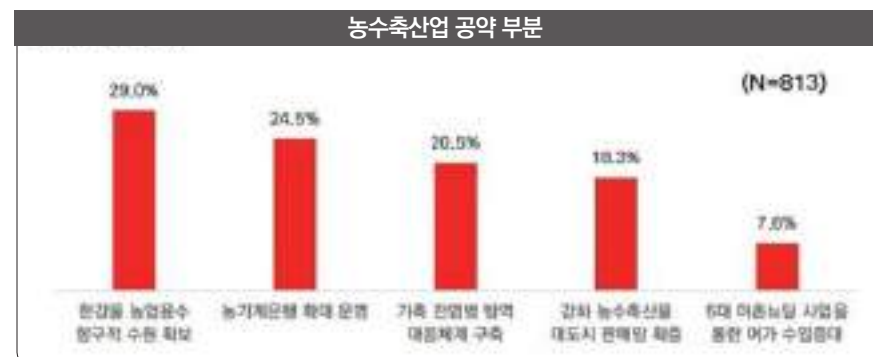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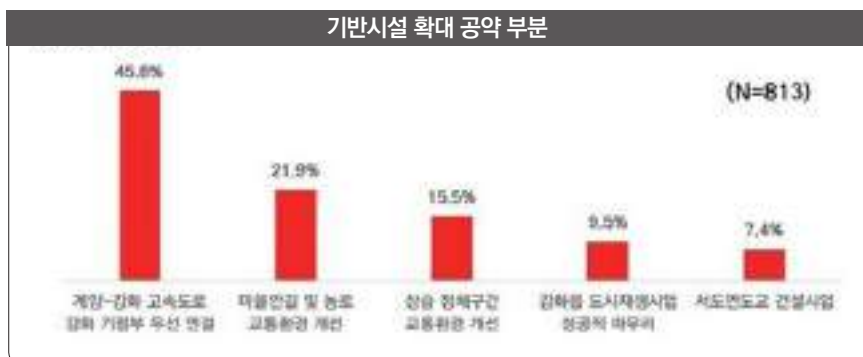
어르신 복지 공약 부분은 '교통약자 군내버스 무료화 추진' 사업이 34.4%

로 가장 높았다. 마지막 농수축산업 관련 공약사업의 경우 '한강물 농업용수 항구적 수원 확보'의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여론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664명을 대상으로 ▲상인 및 소상공인 경영 활동 지원 ▲청년·중장년 취업 및 창업 지원 ▲주민 재산권 보장 ▲역사 문화유산 활용 강화 ▲레저시설 강화 및 관광 SOC 지원 등 5개 분야 공약사업에 대해 진행했다.

먼저 상인 및 소상공인 경영 활동 지원 공약 부분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망 지원(26.5%)', 주민 재산권 보장 공약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사업이 27.9%로 가장 높았다. 역사 문화유산 활용 강화 공약은 '강화 국립고려박물관 설립 유치 추진' 사업이 24.7%로 가장 높았고, 마지막 문항인 레저시설 강화 및 관광 SOC 지원 공약 부분에서는 '외포지구 종합어시장 및 함상공원 건립'이 28.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천호 군수는 "군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알겠다"라며, "군민의 의견을 토대로 공무원들과 힘을 합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남은 3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시, 여름철 폭염에 가축 피해 대비 당부

인천 보건환경연구원, 축산농가에 고온기 축사환경 관리요령 홍보



축사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여름철 폭염을 맞아 축산농가의 하절기 사양관리와 축사환경관리를 통해 폭염으로 인한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가축이 고온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내 대사 불균형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고, 번식장애, 질병발생증가 등 피해가 발생해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므로 폭염으로 인한 가축의 고온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노력해야 한다.

소의 사육적온은 송아지 13~25℃, 육성우 및 번식우는 4~20℃, 비육우는 10~20℃로 송아지와 비육우의 고온스트레스가 비교적 큰 편이다. 특히 비육우는 25℃이상 올라가면 체온이 상승해 사료 섭취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며, 30℃이상이 되면 발육이 정지되므로 비육 중기 이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신선한 사료 급여를 위해 10일 이내 급여할 만큼만 구입하고, 급여 사료의 부패에 대비해 사료조 청소를 자주 실시한다.

축사 지붕에는 차광막을 씌우고, 대형선풍기나, 송풍팬을 이용해

가축의 체감온도를 낮춰 준다. 특히 송풍팬은 축사 안의 과도한 열, 수분, 분진, 암모니아, 메탄 등의 유해가스를 배출하고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야 한다.

돼지는 땀샘이 발달해 있지 않고 두꺼운 지방층으로 인해 타 가축에 비해 여름철 기후에 취약하다.

돈사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단열 관리와 환기시설이다. 단열재가 부족한 경우 지붕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해 물을 뿌려주는 것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모든의 경우 에너지와 아미노산이 보강된 사료를 공급해 생산성 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며, 추가적으로 비타민C와 E, 광물질 등을 공급하면 고온스트레스에 의한 면역력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

닭은 높은 대사율과 체온의 변화가 많은 가축으로 체온조절이 어려워 고온에 특히 취약하다. 계사의 온도상승은 닭의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닭의 고온스트레스를 방지하는 좋은 방법은 계사 내에 바람을 일으켜 풍속을 높여주는 것이다.

육계는 고온 시 비타민C와 냉각수를 급여하고, 폭염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 1~21일령에는 일반 전기사료를 급여하고, 후기(22~출하시)에는 일반후기사료 + 대두유5%(우지5% 대체) + 당밀2%(옥수수2% 대체)+ 메치오닌0.45%+ 라이신0.45%+비타민C 200ppm 첨가 급여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이주호 인천시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 고온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차광막을 씌우고, 대형선풍기나, 송풍팬을 적극 이용해 체감온도를 낮추는게 중요하다”며 “섭취량 저하에 대비해 기호성 높은 사료의 영양소 함량을 상향 조정해 급여하고, 급수조를 자주 점검해 청결하고 시원한 물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갑룡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



기 간 8월 20일(일)까지 [10:00 ~ 17:00]

※ 매주 월요일 & 우천 시 휴장 / 소독정비 12~13시

이용대상 강화읍 거주 만 4세 ~ 초등학생 및 보호자

※ 신분증 확인
※ 소규모 놀이시설로 관외 주민 및 단체 미용객 입장 불가

위 치 강화읍 갑곶리 441-1 (갑룡공원)

유의사항 수영복·수영모 착용
취사음주·흡연 금지 - 간단한 도시락 정도만 허용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산림공원과 공원팀 032) 930-3468



신정 물놀이장 운영 안내

- 운영기간 7월 1일 ~ 8월 20일 (월요일 및 우천 시 휴장)
- 운영시간 10시 ~ 17시 (9시 40분 선착순 입장)
※ 정시기준 45분 운영, 15분 휴식 / 소독정비: 12시~13시
- 위 치 신정체육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선원면 신정리 700)
- 입 장 료 성인 4,000원 / 어린이 2,000원 / 관외 - 5,000원 (성인 어린이)
- 이용수칙 - 어린이 4명 당 보호자 1명 동반 입장 필수
※ 보호자 미동반 시 입장 불가. 보호자는 뒤장 시까지 어린이와 동행
- 주류 및 음식물(과물류, 떡볶이 등) 반입금지 ※ 매시 확인
- 시설 내 취사금지, 반려동물 출입금지
- 튜브 사용 금지 (유아풀 제외)

문의: 강화군체육회 ☎032-933-9696

기고

이경수

교동에 유배된 연산군



연산군묘(서울 도봉구)

어우동이 궁금해서

1474년(성종 5), 성종이 18세 나이에 홀아비가 됩니다. 이때 세상 떠난 왕비 공혜왕후는 불과 19세였어요. 자식 하나 두지 못하고 하늘로 갔습니다. 성종은 후궁 윤씨를 새로운 왕비로 삼았습니다. 왕비 윤씨가 1476년(성종 7)에 아들을 낳으니, 그가 바로 연산군입니다. 이름은 이융이에요.

임금의 적장자로 태어나 만인의 우려를 대상이 된 어린 연산군. 그러나 전혀 행복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부모 불화가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윤씨의 질투가 아주 심했다고 해요. 아버지 성종이 결국에는 어머니 윤씨를 죽입니다. 연산군이 이렇게 엄마를 잃은 것은 7살 때입니다.

“오시에 임금이 대조전에서 흥(薨)하였는데, 춘추는 38세이다.”

1494년(성종 25), 실록에 실린 성종 사망 기록입니다. 성종은 13세에 즉위해서 25년간 나라를 통치하다가 38세에 하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흥? 《예기》에 천자(중국 황제)의 죽음을 ‘붕’(崩)이라 하고 제후국왕(조선)의 죽음을 ‘흥’(薨)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따라 ‘흥’이라고 쓴 것입니다.

그러면, 양반 관료의 죽음은 뭐라고 했을까요? ‘졸’(卒)입니다. 주요 신하가 사망하면 그의 일생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실록에 실었는데, 그 글을 졸기(卒記)라고 합니다. 일반 백성의 죽음은 그냥, ‘사’(死)라고 했습니다.

성종이 세상을 떠나고 조선 제10대 임금으로 연산군(1476~1506, 재위:1494~1506)이 즉위했습니다. 이때 나이 19세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 연산군은 폭군이었습니다. 좀 과장되어 알려지기는 했지만, 모진 짓을 많이 했고, 여자 문제도 지나치게 지저분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법 번듯한 왕의 길을 가는 모양새였습니다. “죄인 중에 심문받다가 죽는 이들이 많다. 이는 심문하는 관리가 죄인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오로지 죄상만을 밝히려고 지나치고 모질게 고문하기 때문이다. 누구의 목숨이든 다 소중한 법이니 앞으로는 심문에 지나침이 없게 하라!” 이런 지시도 내렸던 연산군입니다.

“초장에 꼭 잡아야 돼.”

이런 말이 있죠. 기선 제압의 효용성 같은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그 대상을 아내로 삼으면 좀 거시기하죠. “마누라는 말이야, 초장에 꼭 잡아야 돼.” 이런 말은 오히려 남자를 더 찌질하게 만드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산군 호송 모형(교동 연산군 유배지)

신하들이 초장에 임금 연산군을 꼭 잡으려고 했어요. 왕권이 너무 강해지는 걸 막으려고 그랬겠지요.

어느 날, 연산군이 어우동에 대한 기록을 가져오라고 승정원에 시켰어요. 성종 때 죽임을 당한 어우동은 지금까지도 꽤 유명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승정원 승지들이 임금의 명을 거부하며 말합니다. “이런 더러운 사실을 상께서 보신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조선의 승정원은 오늘날의 대통령비서실이고, 승지는 비서입니다. 그럼에도 망설임 없이 주군의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연산군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감히 임금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져오지 마라.” 바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연산군이 순순히 꼬리를 내렸는데도 승지는 계속 연산군을 욕박지릅니다.

어우동 얘기를 누구에게 들었는지 밝히시라고 다그칩니다. 임금에게 어우동을 말한 이를 처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찢찢매던 연산군이 겨우 한마디 합니다. “그대들이 나를 심문하듯 몰아붙이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니요?”



연산군 생모 폐비윤씨묘, 회묘(경기 고양)

혀는 내 몸을 베는 칼

이랬던 연산군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성격 자체도 좀 포악한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죽음의 진실을 세세히 알게 되면서 분노로 뜨거워진 연산군, 복수의 길을 갑니다. 왕권을 강화하려는 열망이 더해지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피와 술과 여인’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몹시 미움받은 자는 시체를 태워 뼈를 부수어서 바람에 날렸는데 이름하여 쇠골표풍(碎骨飄風)이라 하니, 형벌의 처참함이 이처럼 극도에까지 이르렀다.” 사관(史官)은 연산군이 내린 형벌의 잔인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오사화(1498, 연산군 4), 갑자사화(1504, 연산군 10)를 거치며 연산군의 왕권은 지나치게 강화됐습니다. 조정 신료들, 바른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저 임금의 눈치만 살핍니다. 막가는 연산군을 전혀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바로 죽음입니다. 어느 날, 천식 앓는 신하가 그만, 기침을 했는데, 감히 임금 앞에서 기침했다고 처벌한 연산군입니다. 아, 나오는 기침을 어찌합니까.

“환관이 차고 있는, ‘입은 화(禍)의 문이요, 혀는 내 몸을 베는 칼이니, 입을 다물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 몸이 편안하여 곳곳이 안온하리라.’라고 새긴 것을 조관들에게도 아울러 차게 하라.”

1505년(연산군 11)에 연산군이 이렇게 명합니다. 함부로 입 놀리면 죽인다는 경고의 글을 쓴 ‘신언패(慎言牌)’를 내시들에게 차게 했는데, 그걸 조정 신하들도 모두 차게 한 것입니다. 실록 원문은 “구시화지문 설시참신도 폐구심장설 안신처처뢰(口是禍之門 舌是斬身刀 閉口深藏舌 安身處處牢)”입니다.

참으로 끔찍한 입막음입니다만, 곱씹어 볼 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무서운 흥기가 혀 아닌가요. 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남만 베는 칼이 아니라 나 자신을 베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말 한마디 잘못해서 나라로 떨어지는 정치인들을 흔하게 보잖아요.

정치인보다 더 말 한마디에 신중해야 할 사람은 교사입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무심히 던진 한마디가 수십 년 지나도록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 거꾸로 고통과 증오로 남기도 합니다. 전교 1등 학생에게 “이런 돌대 가리 녀석.”이라고 말하면 농담이 됩시다만, 하위권 학생에게 그런 말을 쓰면, 심각한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연산군이 신하들의 입만 막은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해 겨울, 사냥을 나갔습니다. 군사들이 몰이꾼으로 동원됐습니다. 별안간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습니다. 겨울비입니다. 어느 군사가 옆 사람에게 푸념했습니다.

“빗줄기가 아무리 거세도 주상께서는 사냥을 멈추지 않을걸세. 참 황당한 일이지. 주상은 군졸을 아끼는 마음이 없으셔.” 이 말이 연산군 귀에 들어갔습니다. 연산군은 그를 죽였습니다. 공포정치의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연산군 적거지비와 안내판(교동읍성)

고맙고, 고맙다

결국은 중종반정이 일어납니다. 연산군이 폐위되고 중종이 왕이 되었습니다. 폐주 연산군은 교동으로 유배됩니다. 특이하게도 분홍 옷을 입고 갓을 쓰고 교동으로 출발합니다. 가마에 타며 말하기를, “내가 큰 죄가 있는데, 특별히 상의 덕을 입어 무사하게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폐위에 대한 좌절과 분노보다는 사형되지 않음에 대한 안도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연산군이 폐위되고 유배지 교동에 도착한 것은 1506년(중종 1) 9월 초입니다. 교동까지 연산군을 호위했던 심순경 등이 곁에 들어 중종에게 보고합니다.

“안치한 곳에 이르니, 위리한 곳이 몹시 좁아 해를 볼 수 없었고, 다만 한 개의 조그마한 문이 있어서 겨우 음식을 들여보내고 말을 전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폐왕이 우리 안에 들어가자마자 여시(女侍)들이 모두 목놓아 울부짖으면서 호곡하였습니다. 신 등이 작별을 고하니, 폐왕이 말을 전하기를, ‘나 때문에 멀리 오느라 수고하였다. 고맙고 고맙다.’라고 하였습니다.”

여시는 나인 즉 궁녀를 말합니다. 궁녀 4명과 내시 2명이 따라와 연산군을 시종들었다. 연산군은 자신을 호위해 온 이들이 돌아갈 때, 몹시 고맙다고[多謝多謝] 인사했습니다.

갈 사람 가고 남을 사람만 남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귀양살이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덜컥, 연산군이 큰 병에 걸리고 맙니다. 건강한 사람도 이리 심하게 환경이 바뀌면 애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연산군은 어릴 때부터 병치레가 잦았습니다. 별의별 병을 다 앓았어요. 즉위 초, 21살 그 창창한 나이에 “한 가지 병이 좀 나으면 한 가지 병이 또 생겨” 고통스럽다고 호소했었습니다. 원체 부실한 몸, 쌓이는 분노, 커가는 불안감, 여기에 자책까지 심하게 했을 테고. 더해서 술과 여자로 무절제한 도피! 안 아프면 이상할 정도. 그래도 몸을 지탱했던 것은 긴장의 끈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제 폐위되고 유배되면서 긴장의 끈이 풀리고 몸도 가라앉게 된 것 같습니다.

교동에 유배되고 2개월 지난 어느 날, 연산군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중종이 보낸 내의가 치료하러 오고 있었으나 연산군은 기다려 주지 않았습니다. 향년 31세. 이보다 앞서 중종 조정은 연산군의 네 아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넷 모두 열 살도 안 된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연산군이 아들들 보러 서둘러 하늘로 간지도 모르겠습니다.

연산군은 교동 어딘가에 묻혔습니다. 그랬는데 8년 만인 1513년(중종 8)에 양주 해촌으로 묘를 옮깁니다. 연산군 부인, 폐비 신씨가 중종에게 이장을 요청했고 중종이 허락해서 이루어진 이장입니다. 양주 해촌은 지금 서울 도봉구입니다. 도봉구 방학동에 연산군 묘가 있습니다.

교동에 연산군 유배지로 알려진 곳이 몇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교동읍성 안이 가장 유력한 곳으로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교동읍성 동쪽 언덕에 ‘燕山君謫居址’(연산군 적거지)라고 새긴 비와 안내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석과 안내판 모두 사라졌습니다. 대신 화개정원 ‘연산군 유배지’를 연산군이 유배된 곳으로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

기고

공교육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



이 대 형
인천광역시교원단체
총연합회장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사교육 시장이 커진 원인은 공교육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학생 급감으로 서울에서도 폐교가 나오는데, 교육교부금은 넘쳐나고 있다. 학생은 계속 줄어들고 교육재정은 늘어나는데도 기초교육을 학교로 수렴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다. 내국세의 20.79%가 교부금 명목으로 각 교육청에 간다. 2023년 기준 한 해 97조원을 다루는 교육청의 막대한 예산으로 교육복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공교육 시스템 고장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올해 초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 사교육비 총액은 약 26조원으로 2021년(23조 4000억원)에 비해 11%가량 증가했다. 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후 최고치이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으로 급증했다. 2020년(30만2000원), 2021년(36만7000원) 이후 계속 상승하는 추세이다. 사교육 참여율도 78.3%로 역대 가장 높고 초등학생은 85.2%가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다.

더욱이 학생 수(528만명)는 4만명이 줄었는데, 사교육비는 2조 6000억원이 늘었다. 갈수록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사교육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학부모들의 공교육 불신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다. 사교육의 기세가 꺾이지않는 것은 학교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는데도 이처럼 사교육에 의존하는 이유는 입시 준비를 학교 교육에만 의존하기에는 미덥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학교 선생님들은 수능을 위해서가 아닌, 본인

이 출제하는 내신을 위한 수업을 진행한다. 내신과 수능의 경향이 비슷하다면 문제가 없지만, 적지 않은 내신에서 수능에는 나오지도 않을 법한 수준의 지엽적인 내용들 혹은 교육과정 밖의 내용들이 나오기도 한다.

공교육의 강의 내용과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 선생님들의 수업 내용과 내신 문제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교원 능력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사교육을 감소시키는 방향의 학습 역량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여건이 좋지 않은 아이들에게 공교육의 학습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열심히 공부한 만큼,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

자식 세대에게 더 나은 삶을 물려주고 싶었던 부모 세대의 열망은 수많은 개천의 용들을 키워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환경이다. 교육이 더 이상 사다리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노력보다 부모의 경제력과 배경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공정한 경쟁과 평등한 기회가 상식이 되는 사회, 누구나 노력하면 정점까지 오를 수 있는 교육의 사다리를 더 늦기 전에 찾아야 할 것이다. 그걸 할 수 있는 게 바로 공교육의 역할이다. 학생이 학원 등 과외 시장으로 달려가는 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 영어·수학은 물론 예체능까지 모든 학습 활동을 학교와 교실로 수렴해야 한다. 공교육의 복지를 교육 환경을 알맞게 조성하는 데에만 치중하지 말고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데 더 노력해야 한다. 공교육의 내실화로 사교육비를 대폭 줄일 수 있기를 소망한다. ▣



**누구나 노력하면
정점까지 오를 수 있는
교육의 사다리를 놓는 것이
공교육의 역할**

칼럼

외국어 남용하는 사회



김학준

전) 서울신문 기자

‘수자인레이크파크, 블랜드에듀포레힐, 파크에비뉴포레, 칸타빌더테라스, ’. 외국의 거리나 주거지 명칭이 아니다. 우리나라 아파트단지 이름이다. 새로 지은 아파트는 물론이고, 기존 아파트들도 대개 명칭이 외국어로 바뀌었다.

게다가 웬만한 외국어로는 성에 차지 않는지 단어가 점점 현란하고 길어진다. 영어뿐 아니라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그리스어까지 차용하거나 국적 불명의 외국어도 등장한다. 한글명을 유지하고 있는 아파트를 보면 오히려 신기하다.

이를 두고 지난날 “시어머니가 쉽게 찾아오지 못하게 아파트 이름을 영어로 짓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다. 하지만 사실은 아파트 브랜드(명칭)가 아파트의 재산가치를 결정한다고 보고, 외국어 명칭이 고급 이미지를 줄 것이라 믿는 심리 때문에 이같은 현상이 생겨났다. 그러나 기대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다. 다 따라하니깐. 더 민망한 것은 한국인이면서 외국어 이름으로 버젓이 활동하는 연예인들이다. 하나둘이 아니어서 열거하기 쉽지 않다.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기억이나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민간 영역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부나 공공기관이 외국어 사용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해피하다. 정책명이나 공문서에 옴부즈만(행정권 남용으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었을 때 조사, 감찰하는 사람), 거버넌스(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이해당사자들이 투명하게 의사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반장치), 바우처(주민이 교육, 주택, 의료 등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가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 등 어려운 외국어가 수없이 등장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광역자치단체들의 보도자료를 분석한 결과 8509건 중 8386건에서 외국어가 1개 이상 등장했다.

위의 예시 중 최근 부쩍 많이 듣는 용어가 거버넌스다. ‘민관 거버넌스’ ‘다문화 거버넌스’ ‘에너지 거버넌스’ ‘인공지능 거버넌스’ 등 거버넌스를 마구 갖다붙이고 있다. 이리다보니 ‘휴탕물 저감 거버넌스’ ‘떡거리 거버넌스’와 같은 억지스러운 말도 등장했다. ‘젠더 거버넌스’ ‘스마트시티 챌린지 거버넌스’ 등처럼 다른 외국어와 결합해 무슨 뜻인지 알기가 더욱 어려운 경우도 있다. 한마디로 아무 말 대잔치다. “시민들이 쉽게 알지 못하게”라는 농담이 나올 만도 하다.

이처럼 뜻이 명확하지 않은 외국어를 함부로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언론은 “무언가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한 의도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고 해석했다. 참다 못해 국립국어원이 나섰다. ‘거버넌스’의 경우 ‘관리체계’ ‘민관협력’ ‘협치’ 등으로 바꿔 쓸 것을 권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정책에도 외국어는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한다. 인천 중구는 국내 최초로 누들(국수)을 주제로 한 복합문화공간인 ‘누들 플랫폼’을 신포동에 조성했다. 하지만 대표적 서민음식인 국수를 굳이 영어로 표기해야 했는지, 또 ‘플랫폼’은 왜 갖다붙였는지 모르겠다. 경기도 부천실버인력뱅크는 노인일자리 역량을 강화하는 ‘시니어 리더스쿨’을 운영했는데 참가한 노인들이 거창한 명칭에 헷갈려 했다고 한다.

부분별한 외국어 사용은 정책 입안 취지를 흐리게 하고, 시민들의 이해도를 떨어뜨릴 수 있어 정책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작위성만 노출된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이런 행태는 50대 이상에게 신(新)문맹을 일으킬 수 있다.

더 가관인 것은 공공기관들의 변신이다. 한국철도공사는 공식적으로 ‘코레일(KORAIL)’로 불리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LH’에 주 명칭 자리를 내주고 보조명으로 전락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정식 명칭이

‘K-water’다. 이러면서도 한글날만 되면 세종대왕을 기리고 한글의 우수성을 들먹인다. 상당수 커피숍, 카페, 제과점은 아예 영어로 된 간판을 내걸고 장사한다. 아파트 이름을 영어로 짓는 심리와 동일할 것이다.

게다가 TV 토론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사람들조차 국적 불명의 외국어를 남발한다. 뇌피셜(객관적 근거없이 자신의 생각만을 근거로 한 추측이나 주장), 가스라이팅(심리나 상황을 조작해 상대방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일), 코스프레(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오히려 피해자인 척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 등이 대표적이다.

얼마나 즉흥적이고 모호한 조어(造語)인지 인터넷 어학사전에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라고 돼있다. 쉽게 말해 사전조차도 해석을 포기했다는 의미다. 이런 말이 버젓이 방송에 등장하니 시청자들이 헷갈리는 것은 당연하다. 본인들은 세련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말을 남발하는지 모르겠지만 천박한 식견과 인격을 드러낼 뿐이다.

한편 우리나라 외국어 교육 실태는 어떤가. 초, 중, 고 10년(초등학교는 3학년부턴)으로도 모자라 대학(교양과정)에서까지 영어를 배우고 있다. 심지어 영어유치원까지 등장했다. 여기에 들어가려면 시험을 봐야 하는데, 이에 대비하는 과외도 성행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공을 들인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를 잘 할까. 결론은 ‘NO’다.

본인 또한 10년 이상 영어를 배웠지만 외국인과 5분 이상 대화해본 적이 없다. 미국 영화도 자막 없이는 볼 수 없다. 회화 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 영어교육은 문법과 독해 위주로 이뤄진다. 대학입시를 비롯한 영어시험 역시 문법과 독해력 파악에 주안점을 둔다. 그러니 회화를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일화도 있다. 지방에서 고등학교 영어교사로 재직하는 사춘동생으로부터 들은 얘기다.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미국 도시 관계자들이 학교를 방문했을 때 영어교사 대부분이 자리를 피했다고 한다. 그들 역시 문법 위주의 영어를 배운터라 외국인과 대화했다가 자칫 학생들 앞에서 망신당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영어교사가 이 정도면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없다. EBS(교육방송)는 이런 현상을 ‘영어 무인도’라고 표현하고 이를 타파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우리와는 판판이다. TV 방송국에서 제작한 해외여행 프로그램을 보면 유럽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남미, 인도, 심지어 아프리카 사람들도 대체로 영어 구사력이 우리보다 낫다. 공식 교육이든 비 공식 교육이든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이런 교육은 1년만 받아도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다.

우리 교과과정에서 영어를 가르친지 70년이 넘었지만 별로 변하지 않았다. 저학년은 회화 교육을 다소 강화하고 있다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오로지 입시 위주 영어교육이다. 본인이 1970년대 말 대학입시를 위해 공부했던 **종합영어(영어 참고서)가 아직도 꾸준히 팔리는 스테디셀러라고 한다. 문법 위주의 책으로 수준이 매우 높았다.

문법 위주의 교육은 실용성이 없는데다 언어 교육의 몰입도를 크게 떨어뜨린다. 초등학교 시절 영어에 흥미를 느꼈다가 문법교육이 시작되는 중학교부터 영어에 흥미를 잃게 된다고 연구 결과가 있다. 10년 이상 영어를 배워도 말을 못하는 현상의 주범은 문법 위주 교육인 것이다.

최근 이슈가 된 수능 영어 ‘킬러 문항’을 보면 입이 벌어진다. 영어교사나 미국인도 제대로 풀 수 없는 수준이다. 아무리 변별력을 위한 문항이라지만, 전문가들조차 모르는 문제라면 언어 가지고 장난치는 것과 다름없다. 아파트와 가게 간판은 영어 천지고, 영어교육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상 영어를 못한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다. ▣

시원한 여름나기, 꿀잠 자세요! 강화군새마을회, 취약계층에 여름 이불 전달식



강화군새마을회 여름 이불 나눔

강화군 새마을회(회장 조인술)는 30일 관내 취약계층 450가구에 여름이불을 전달했다.

이번 여름 이불 전달사업은 저소득 가정에 시원한 여름이불을 직접 전달하며, 안부를 묻는 등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눴다.

강화군 새마을회 조인술 회장은 “일찍 찾아온 폭염과 습한 날씨로 인해 눅눅한 이불을 덮고 자야 하는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힘이 된 거 같아 보람되고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이웃들을 위해 꾸준히 봉사하는 단체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폭염에 지친 우리 지역의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시원한 여름을 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 라고 말했다.

강화군새마을회는 행정기관과 소통하며 사랑의 고추장 담그기, 사랑의 여름김치 나누기, 사랑의 연탄나누기 등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

강화읍 늘푸른어린이집, 바자회 수익금 전액 기탁



강화읍 늘푸른어린이집 기탁

강화군 강화읍 소재 늘푸른 어린이집은 지난 6일 원생들과 함께 읍사무소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 달라며 바자회 수익금을 전달했다.

늘푸른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지아)는 원아들과 학부모가 아나바다 바자회를 통해 모은 수익금으로 50만 원의 현금과 라면 18박스를 마련했으며, 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층에 지원할 예정이다.

김지아 위원장은 “바자회 행사를 통해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되어 기쁘다.”며, “아이들의 마음이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주우종 읍장은 “고사리 손으로 모은 정성을 도움이 필요한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

초복맞이 영양만점 보양 도시락 글로벌셰프고, “사랑의 밥차” 봉사



사랑의 밥차 봉사활동

강화군 한국글로벌셰프고등학교는 지난 13일 초복을 맞이해 강화군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사랑의 밥차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재료 손질부터 도시락 포장까지 한국글로벌셰프고 교직원들과 학생들이준비했다.

양지도가니탕과 계란말이, 김치전, 떡갈비 등으로 맛과 영양을 챙긴 200개의 도시락은 내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 210가구에 직접 전달했다.

‘사랑의 밥차’ 행사 전 내가면 이장단, 노인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주요 직능단체장 및 회원 약 80여 명을 초청해 오찬도 함께 제공했다.

유천호 군수는 “식사를 직접 챙기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도시락을 준비해주신 한국글로벌셰프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교직원, 학생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값진 경험이 학생들이 좋은 셰프가 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글로벌셰프고등학교는 작년에도 한우곰탕 200인분을 직접 만들어 관내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탁한 바 있다. **▶**

오이를 먹어야 하는 이유?



오이는 황달에도 효과를 보이며 소화나 변비에도 도움을 주고, 체내의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이 탁월한 건강채소로 알려져 있다. 오이는 또한 피부를 희게 하고 염증을 진정시키는 작용을 하며 보습효과도 뛰어나 미용재료로도 많이 이용된다.



- 오이는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오이 한 개는 비타민B1, B2, B3, B5, B6, 비타민C, 엽산, 칼슘, 철분, 마그네슘, 인, 카리, 아연 등을 포함하고 있다.
- 가령, 오후에 피로를 느낄 때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소다수 (콜라 등) 보다는 오이 하나를 먹는 것이 낫다. 오이는 비타민B와 탄수화물을 섭취할 수 있어서 속히 원기를 회복하고 몇 시간 지탱할 수 있다. (오이 샌드위치)
- 샤워를 하고 나서 욕실 거울에 뿌연 김이 서리는 것이 싫으시면 오이를 가로로 썰어서 거울 표면에 문질러 주면 김이 말끔히 가시고 스파처럼 상쾌한 향기가 풍깁니다.
- 텃밭과 화단에 굼벵이와 달팽이가 창궐하면, 납작하고 빈 알루미늄 강통 속에 가로 썬 오이를 몇 쪽씩 넣어 두면 여름 한철 밭에서 그런 벌레들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오이의 화학성분이 강통 표면의 알루미늄과 반응하여 사람의 코로는 맡을 수 없는 냄새를 발산하는데 벌레들은 이 냄새를 견디지 못하여 밭에서 달아납니다.
- 외출할 때 얼굴에 돋은 뾰루지 또는 수영복으로 갈아 입을 때 노출되는 뾰루지를 간편하게 감추는 방법을 알고 싶으세요. 오이를 썰어서 한두 쪽을 그 부위에 몇 분 동안 문질러 주면 오이의 식물성 화학 성분이 피부의 교원질을 긴장시켜 외피를 팽팽하게 만들고 뾰루지를 감춰줍니다. 주름살을 일시 감추는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 숙취나 두통을 예방하려면, 잠들기 전에 오이를 몇 조각 먹고 자면 아침에 일어나서 두통이 없고 상쾌하여 집니다. 오이에는 숙취나 두통을 막아주는 우리 몸에 필요한 당과 비타민B군, 전해질과 같이 소모된 영양을 보충하고 균형을 잡아 주는 영양소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 출출한 오후나 저녁에 간식을 먹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고 싶으면 오이를 드세요. 유럽에서는 수 백년 동안 사냥꾼, 탐험대원 등이 야외에서 손쉽게 허기를 채우는 수단으로 오이를 먹었습니다.
- 중요한 회합이나 취직 면접 장소에 서둘러 나가야 하는데 구두 닦을 시간이 없습니까. 오이를 가로 잘라서 구두 표면에 문질러 주면 광택이 오래 유지될 뿐만 아니라 물방울도 배퇴합니다.
- 삐걱거리는 돌쩌귀 (경첩)를 윤활해주고 싶는데 WD-40이 떨어졌습니까. 마찰 부위에 오이를 문질러서 오이즙을 스며주면 어느새 삐걱거리지 않게 됩니다.
- 여인이 일과에 지쳐서 얼굴 마사지나 스파를 하고 싶는데 시간이 없습니까. 오이 한 개를 몽땅 썰어서 냄비에 담아 물을 부어서 끓이면 오이의 화학물질과 영양소가 증발해서 편안하고 그윽한 향기를 발산하는데 그것은 산모나 학기말 시험을 치르는 여대생들의 신체적 스트레스를 경감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직무상 고객들과 오찬을 나눈 후 입냄새가 걱정되는데 껌이나 박하사탕 준비가 없습니까? 오이를 가로 썬 얇은 조각 하나를 혀바닥에 올려 입천장에 밀어부치고 30초 동안 입을 다물고 있으면 오이의 식물성 화학물질이 입냄새를 발생시키는 박테리아를 죽여서 입냄새를 제거합니다.
- 수도꼭지, 싱크 또는 스텐레스 용기 등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닦고 싶습니까. 닦고 싶은 용기 표면에 오이 조각을 문지르면, 여러 해 묵은 때를 벗겨내서 광택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얼룩도 남기지 않고, 닦는 동안 손가락과 손톱에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 펜으로 쓴 글씨를 지우고 싶습니까? 잘못 쓴 글자를 오이 껍질로 살살 문지르면 지워집니다. 또 아이들이 벽에 그린 크레온, 마크 등 낙서 자국을 지우는 데도 효력이 있습니다.



보다 나은 인쇄와 광고로 고객 여러분께 보답합니다!

명함 · 달력 · 상패 · 스티커 · 전단지 · 청첩장 · 포스터 · 책
봉투 · 인쇄 · 복사 · 코팅 · 팩스 · 제본 · 행사홍보기념품 제작



삼성인쇄광고기획은
오랜기간 쌓아온 실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신식 시스템과 최신의 기술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편집, 기획, 출판 및 옵셋인쇄, 마스터인쇄, 캘린더, 각종 광고물 등 원스톱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결과물로
클라이언트의 선택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대량의 물량 수급에도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인쇄시장 환경에 관심을 기울여 다양한 방면으로 도전하고 발전하는 회사가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중앙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구비

SS 삼성인쇄광고기획

☎ 032)934-7778 / 010-6608-7778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20번길 2 (강화군청 후문 강화경찰서 앞)



강화투데이

www.ghtoday.co.kr

등록번호 인천, 다06132(일반주간 / 구독료 무료) 등록일 2021년 8월 17일 발행인 강화투데이(주) 신봉기 편집인 최벽하 인쇄인 서석준
발행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4 T. 032)933-1080 F. 933-1082 E. today1080@naver.com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농협 351-9933-1080-53

▶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나가는 강화투데이(일반주간)는 구독료 무료로 애독자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미디어입니다! ◀
강화군 신문발전지원조례에 따라 강화군 지방보조금으로 지원 제작되었습니다